

【논문】

세계족과 세계 유전자*

박 승 익

【주제분류】 현상학, 의미론

【주요어】 가능세계, 후설, 지향성, 파생세계

【요약문】 이 글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세계 개념과 관련된 의미론적 문제를 후설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우리가 하나의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에서 세계는 여럿이다. 직업의 세계, 가치의 세계 등의 표현이 전혀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세계를 ‘영역’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경우 이른바 ‘객관적인 세계’ 역시 그런 세계의 여러 양상들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비록 물리적인 세계가 존재론적 관점에서 매우 근본적인 지위를 갖는다고는 하나, 그런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세계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은 지적 활동을 통해 얻어진 개념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후설 현상학의 개념적 장치들을 실마리 삼아 우리의 복잡한 세계 이해를 토대세계와 파생세계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파생세계들은 말 그대로 토대세계로부터 파생된 세계들이다. 따라서 토대세계가 없이 파생세계가 가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파생세계가 토대세계로 오롯이 환원가능하지는 않다. 각 층위의 세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원리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상의 세계와 같이 아주 일시적인 파생세계도 있고, 문화의 세계처럼 지속적인 파생세계도 있다. 이 글은 세계 개념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생물학적 유추와 지향성 개념을 이용해서 해명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09년 12월 한국 현상학회의 후설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논문의 심사를 맡아 조언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I. 여러 종류의 세계

로알드 달(Roald Dahl)의 기발한 단편소설, 『목사의 기쁨』¹⁾은 한 목사의 탐욕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하지만 독자로서는 통쾌하기 짝이 없는 반전을 보여준다. 골동품에 안목이 있는 목사는 값나가는 고가구를 싸게 사서 되파는 일로 째째한 재미를 본다. 어느 날 그는 어수룩해 보이는 한 농부의 집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아주 훌륭한 고가구를 만나게 된다. 그는 가구에 대한 온갖 흥을 잡으며 농부와 흥정을 시도한다. 물론 속으로는 횡재에 대한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결국 목사는 그 가구의 쓸모라고는 네 다리뿐이지만 자비를 베푸는 소리를 곁들여 말도 안 되는 가격의 흥정에 성공한다. 목사가 엄청난 거래에 쾌재를 부르며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쓸모없는 가구를 돈까지 받고 처분하게 되어 신이 난 농부는 혹시나 조그만 차를 가지고 온 목사의 마음이 바뀔까 노심초사하게 되고, 결국 가구의 다리 부분만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나머지는 다 부수어 버린다는 이야기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세계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너무나 그럴 듯해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 이 세계 어딘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법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의 터전이 되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주변 생활세계(*Lebensumwelt*)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이 묘사해 낸 가상의 세계일 뿐이다. 말하자면, 작가와 독자가 공유하는 관념의 세계일 뿐이다. 물론 이렇게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구성된 세계라고 해서 그저 무의미한 세계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이런 소설이 그 어떤 윤리 교과서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소설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아무리 큰 가르침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참된’ 세계는 아닌 것만 같다. 무엇보다 그것은 상상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상상의

1) 로알드 달(R. Dahl), 『맛』, 정영목 역, 강, 2005.

세계'라는 표현은 통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해석되어져 왔다. 그 때문에 여태껏 그런 상상의 세계들은 학문적 탐구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상상의 세계 혹은 허구적인 세계가 우리의 건전한 '세계 이해'의 발목을 잡아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상의 세계가 모종의 기능을, 그것도 제법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왜 '존재하는 세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안 되는가? 다시 말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학적 대상들이 실재한다고 믿는 플라톤 주의자들의 의문과 비슷하게 소설의 세계가 단순히 허구적인 세계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우리의 직관에 묘한 균열을 일으킨다. 망상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허구의 세계와 건전한 존재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상하는 세계 사이의 차이가 그리 선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 두 세계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만 같다. 다만 차이, 혹은 문제라면 그런 상상의 세계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상상의 세계 자체가 아니라, 그 세계의 '주인'들의 세계에 대한 태도 차이일 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세계들은 단지 그런 세계를 상상한 창작자의 관념들이 밖으로 투사된 것이므로, 탐구의 대상이 된 것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창작자의 관념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그런 세계들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념적 구성물이며, 따라서 만약 예술적 창작과 관련해서 어떤 진리가 말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과학적 인식론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진리로 간주되어 왔다. 때문에 예술적 창작물 속에서 표현되는 세계는 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상상의 세계라는 이유로 진리를 말하는 담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홀대가 아닐까?

누구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인류의 미래세계를 걱정하기도 한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세계든, 혹은

단순한 상상의 세계든, 그 모든 세계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세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그런 세계들이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일부라는 점 역시 분명해 보인다. 만약 어떤 현실화되지 않은 세계에 대해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면,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자고 논의하는 일들은 사실상 부질없는 모임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법칙과 자료에 근거해서 추측하는 가능세계와 개인적인 공상 속에서 등장하는 가능세계를 모두 한 종류로 싸잡아 말하는 것 역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직관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반입자들과나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뉴런들의 발화상태,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의 기후 제양과 같은 사건들은 참된 세계의 사건들로 간주되지만, 멋진 명품 가구의 다리만을 헐값에 사게 된 목사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우리는 ‘세계’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뭔가 석연치 않은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셈이다. 예컨대 양상 논리의 의미론과 관련된 가능세계론을 생각해보자. 루이스(Lewis, D.)의 실재론(Realism)적 입장이든 스탈네이커(Stalnaker)의 현실론(Actualism)의 입장이든 가능세계론이 도입된 것은 이른바 자연 법칙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양상적 진술의 진리 조건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논의는 원칙적으로 수학적 대상들의 세계나 가치의 세계, 신화의 세계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세계들, 이른바 관념적 구성을 통해 생겨난 다양한 종류의 세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관점에서 말해질 수 있을 것이 아닐까?

일단 어떤 세계가 참된 세계인지, 혹은 좀 더 중립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봐서 어떤 세계를 ‘존재하는’ 세계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세계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예컨대, 후설(Husserl)이 지적했듯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태도 속에서

“이 세계는 나에게 그저 사실의 세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세계, 좋은 것들의 세계, 실천적 세계 등으로 존재”(Hua I, 58 쪽)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이런 ‘세계들’의 목록에 매우 다양한 종류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소설가를 비롯한 예술적 창작자들이 묘사하는 상상적 세계, 양상적 진술의 진리조건으로서의 가능세계, 수학적 대상들의 세계 등 다양한 종류의 세계들을 그런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목록을 ‘세계족(family of worlds)’이라고 부르려 한다. 이때 ‘세계족’은 화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 의미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원소들의 원자나 전자의 배열이 유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말해지는 집합적 개념이다. 이렇게 세계를 목록화 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세계 이해를 자연스럽게 담아낸다는 점에서 유용해 보인다. 가령, 일상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일종의 한계개념으로서 ‘세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수학적으로 전체집합과 같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세계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제한된 의미의 ‘세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가 체험하는 다양한 세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전체 집합 내에서 구성되는 부분집합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후설이 생활세계를 모든 의미 구성물들의 선형적(*transzendente*) 토대로 봄으로써 이른바 자연과학주의적인 ‘참된 세계’의 의미를 흔들어 놓은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들을 구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었다. 자연과학이 기술하는 세계는 세계의 여러 모습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²⁾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여러 세계들이 모두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갖는 것인지의 물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로알드 달이 묘사하는 세계와 기후학자가 말하는 기후 재앙으로 고통 받는 미래세계가 동등한 위상을 가

2) 후설은 이렇게 말한다. “[...] 우리의 사실적 경험의 상관자, 이른바 ‘실제 세계’가 다양한 가능 세계들(möglichen Welten)과 주변세계들 중 특수한 경우로서 생겨나게 된다. 그 세계들은 물론 정도의 차이를 갖는 경험연관 아래서 이른바 ‘경험하는 의식’의 본질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변양들의 상관자들에 다름 아니다”(Hussel, E., *Husserliana*(이하 Hua) III.1, 100.

진 세계로 보아야 할까?

비록 ‘세계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러 종류의 세계들을 하나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게 되더라도 그 세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그런 시도는 별반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을 담고 있다. 제안의 핵심은 세계를 생물학적 유비를 통해 이해해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세계, 혹은 상상하는 세계들은 마치 네 가지의 유전자가 수많은 돌연변이들을 만들어 내고,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살아남는 생명체들처럼, 우리는 대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의 결과물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적합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긴 지속시간을 갖는 세계가 된다. 물론 이러한 유비는 세계를 마치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는 대상처럼 생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위험은 무해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의 세계는 세계를 인식하는 주관의 지향적 상관자로서 일종의 개념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유비는 우리의 개념적 구성물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논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것은 ‘세계’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유연한’ 태도이다.

II. 세계 개념의 다의성과 파생세계들 (Derivative Worlds)

‘동물의 세계’, ‘정치적 세계’, ‘음악의 세계’ 등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라는 개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그 경우 ‘세계’라는 표현을 우리는 ‘~과 관련 있는 것 전부’를 뜻하는 일종의 집합적 개념처럼 쓴다. 물론 우리는 그런 집합들의 집합, 말하자면 가장 큰 전체 집합으로서 ‘세계’라는 개념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의 ‘세계’는 특정한 철학적 입장을 전제하지

않는 한, 일종의 한계 개념이자 공허한(형식 논리적) 개념일 뿐이다.

가령 우리가 어떻게 세계 개념에 도달하는지 생각해보자. 그 가능성은 두 가지 정도다. 우선 나를 포함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단번에 묶어버리는 추상을 통해 곧바로 ‘세계’ 개념에 도달할 경우, 그 개념은 그 자체로 형식적이며, 그 개념의 구성자인 ‘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 것도 지시하는 것이 없는 공허한 개념이다. 다른 가능성은 세계의 구성요소들을 차례차례 포함관계를 통해 더 큰 집합을 만들어 가는, 일종의 ‘구성적’ 절차를 거쳐서 ‘세계’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족, 지역사회, 국가, 아시아, 지구 그리고 태양계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세계 개념은 매우 직관적이어서 어린이들에게조차 세계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세계 개념을 구성하면, 점점 더 크게 확장되는 세계는 일종의 순서 관계가 성립하는 정렬집합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 개념을 유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형식적으로 부랄리-포르티 역설과 같은 곤란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³⁾ 결국 이 경우에도 역시 ‘세계’는 일종의 형식적인 한계 개념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세계’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은연 중에 수학적 의미의 무한 개념을 끼워 넣기 때문에 생겨난다. 즉 세계는 원리적으로 무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세계가 무한하다는 믿음은 제한된 경험의 세계를 고도로 추상화한 극한 개념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실제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개념으로서의 ‘세계’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라는 형식 논리적 개념보다는 특정

3) 예컨대 그렇게 확장되는 순서에 따라 ‘세계(W)’들의 계열을 가정해 보자. 각 순서의 세계는 이전 순서의 세계를 원으로 하는 집합이다. 즉 $w_3 = \{w_1, w_2\}$ 이다. 이 때 ‘가장 큰 세계’ w_n 을 생각해 보자. w_n 은 $\{w_1, w_2, \dots, w_{n-1}\}$ 이 될 것이다. 그런데 w_n 역시 하나의 세계이므로, $\{w_1, \dots, w_n\} = w_{n+1}$ 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 가장 큰 세계인 w_n 은 $w_{n-1} \subseteq w_n \subseteq w_{n+1}$ 의 관계가 되어 ‘가장 큰 세계’라는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한 범주(category)로 묶어서 통일성을 줄 수 있는 영역적(regionale)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⁴⁾ 그리고 그렇게 질적 차별성을 가진 영역으로서의 세계들의 모임은 ‘세계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런 세계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예컨대 후설은 그런 세계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각각의 세계는 논리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의 자연적인 세계와 가치의 세계나 정치의 세계와 같은 관념적인 주변세계들(idealen Umwelten), 즉 “동시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두 세계들은, 그 세계들이 모두 나와 관련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내 시선과 작용을 어느 한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 한다면, 서로 무관하다.”(Hua III.1, 60) 후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선 ‘세계’ 혹은 ‘영역’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의 유(Gattung)를 가질 수 없는, 일종의 최고 유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⁵⁾

그러나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이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우선 이런 점에서 어느 한 세계가 다른 세계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각 영역들이 아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정은 정반대이다. 후설이 각 영역의 독립성을 말한 것은 해당 영역의 정체성(Identität)과 관련한 분류(Klassifikation)의 문제 때문이었다. 가령,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철저한 구별은 결코 서로 얽혀 있음과 부분적인 중첩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질적 사물’과 ‘영혼’은 상이한 존재 영역(Seinsregion)이지만, 그럼에도 영혼은 물질적 사물에 토대를 두고 있고, 이로부터 영혼론이 신체론에 토대를 두게 되는 것이다”(Hua III.1, 38쪽).

기초지움 혹은 토대지움(Fundierung)의 관계는 일종의 의존관계를

4) 후설, Hua III.1, 24-26쪽 참조.

5) 후설의 같은 책, 30쪽 및 36쪽 참조.

의미한다. 후설이 『논리연구』에서 제시한 분석을 따르자면⁶⁾,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을 토대로 삼는다면, 토대가 되는 영역은 그것에 의지해 있는 영역의 존립기반이다. 물론 그것이 곧바로 두 영역 사이에 환원 관계가 성립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집이라는 건축물이 그 건축물을 지지해 주는 지반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해서 집이 땅으로 환원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⁷⁾ 토대지음의 관계는 각 영역의 정체성이 손상되지 않는 의존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 즉 다양한 영역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여러 세계들을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단지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으로 환원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한 영역들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의존관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제 토대 혹은 기반이 되는 세계와 그런 토대에 의지해 있는 세계를 분리해서 말한다면, 토대에 의지해 있는 세계들은 그 토대에서 파생된(derivative) 세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들, ‘정치적 세계’, ‘예술적 세계’, ‘소설의 세계’ 등은 모두 파생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이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토대세계는 무엇이고, 파생세계들은 토대세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파생세계들의 독립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파생세계들은 동등한가?” 등의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런 물음들을 하나의 일관된 시선에서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물음은 “파생세계는 자연종인가?”라는 물음이다.

크립키(Kripke, S.) 이후로 본질이나 속성, 혹은 법칙의 필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자연종에 관한 논의⁸⁾는 현재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

6) 후설, Hua XIX/1, III 연구, 2장, 특히 §14 참조.

7) 후설, 위의 책, 355쪽 참조.

8) 양상의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연종에 관한 논의는 사물의 필연적 속성과 본질, 그리고 고정지시어와 관련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에 관해, 특히 인공종에 관한

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비겔로우(Bigelow, J.) 등을 비롯한 몇몇의 학자들은 자연 법칙의 필연성을 이 자연종 개념과 관련시킨다.

“예를 들어 맥스웰(Maxwell)의 방정식은 전자기장의 필연적 속성을 기술한다. 다른 법칙들의 경우에, 가령 다른 종(kind)의 사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사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술하는 법칙들은 그 사물들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유도된다. [...] 이러한 사정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상대성 원리 그리고 대칭 원리 등과 같은 자연의 근본법칙들 중 대부분에 대해서 참이다. 즉 그것들 역시 자연종의 본질적 속성들과 관련이 있다.”⁹⁾

비겔로우가 자연법칙의 필연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자연종 개념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연종 개념을 끌어들이는 아이디어가 필연성이라는 양상적 개념과 우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자연법칙의 일반성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즉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반드시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말하자면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세계들과 필연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후설 역시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조작적 규정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상이한 세계들을 구성할 수도 있다. [...] 개개의 이러한 세계들은 아마도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리고 상이한 법칙체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 서로 다른 자기들만의 자연과학을 가질 수도 있다.”(Hua V, 32쪽) 그리고 비겔로우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그러한 다양한 가능 세계들 중에 “한 종류에 속하는 하나의 세계이다.”¹⁰⁾ 그리고 하나의 ‘사실’로서의 이 세계는 후설이 말한 것처럼 언제나 달리 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일종의 우연성에 기초해 있다.¹¹⁾ 따라서 비겔로우는 ‘자연종’ 개념에 호

논의를 포함한 친절한 소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정대현, 『크립키 본질주의와 인공종』, 『철학』 vol. 29, No.1, 1988.

9) Bigelow, J., Ellis, B., & Lierse, C., “The World as One of a Kind: Natural Necessity and Laws of Nature”, in *Brit. J. Phil. Sci.* 43, 1992, 371쪽.

10) 비겔로우 등, 같은 논문 371쪽 참조.

소함으로써 우연적인 ‘이’ 세계의 자연법칙이 필연적 성격을 갖는지를 해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연법칙의 필연적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는 비겔로우의 설명 전략은 본질주의적이다. 즉 자연법칙의 일반성을 대상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질을 원초적인 개념으로 삼고, 그로부터 자연종 개념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세계에 관한 논의로 확장시킨다. 즉 우리는 ‘이’ 세계가 특정 종류의 세계임을 중지하지 않는 한,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속성들이 있으며, 그런 본질적 속성들을 갖지 않는 세계들은 우리의 ‘이’ 세계와는 다르다고 가정할 수 있다.¹²⁾ 물론 세계의 본질적 속성을 기술하는 자연법칙은 세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인자가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논리적 필연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연적 필연성’을 규정하기는 용이해진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자연법칙이 바로 ‘이’ 세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본질적 속성들로부터 유도되는 것인 한, 이 세계는 그 자연법칙이 기술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법칙이 ‘이’ 세계의 자연법칙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인지는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자연법칙의 필연성은 결코 이 세계가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탐구가 기술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논의 모델을 파생세계로서의 상상의 세계, 혹은 여러 문화적 세계들에 적용시켜 보자. 그런 상상의 세계나 문화세계들도 자연종일 수 있을까? 얼핏 이러한 질문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화세계라는 표현을 우리는 ‘인간에 의한’, 따라서 자연적이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처럼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자연적’이고, 무엇이 ‘인공적’인지가 그렇게 선명하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자연의 한 존재

11) 후설, Hua III.1, 12쪽 참조. 이 문제는 후설 후기의 ‘생활세계’ 개념과 관련해서 왜 생활세계가 헤라클레이토스적 상대성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초이기도 하다.

12) 비겔로우 등, 같은 논문 373쪽, 참조.

인 한, 자연적이라는 표현과 인공적이라는 표현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표현이 아니다. 뿔논병아리가 주변 환경물을 이용해 튼튼한 둥지를 만든 것은 자연적인 반면에 인간이 만든 집은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구별은 엄격한 개념적 구별이라기 보다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키는 문화적 관념의 산물이기 쉽다. 우리가 이 세계의 존재자와 그 존재자들이 다른 존재자와 관계하며 만들어 내는 모든 행태와 산물들을 모두 ‘자연적’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인간이 자연의 한 존재자라면, 사실상 모든 인공적인 것 역시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세계들이 자연종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의도는 문화세계가 인공적인 세계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에 대답하는 일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실제로 얼마나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하며, 그런 작업에 그렇게 큰 실익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 질문은 오히려 문화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자연종으로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겨냥한다.

Ⅲ. 파생세계와 세계 유전자

그런데 혹시나 파생세계들 모두를 자연종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컴(Ockam)의 격언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많은 세계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이닝(Meinong, A.)이 그랬던 것처럼 상상 가능한 온갖 가능세계들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동등한 지위를 허용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는 단순히 그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자들만의 총합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특정 존재자들의 영역을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세계’로 구별해 내는 까닭은 단지 그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관계들이 ‘이름’을 갖게 되면, 그러한 관계들 자체가 하나의 대상으로서, 일중

의 존재자로 간주된다. 가령 소설 속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성원들의 실재여부가 아니라, 가정된 실재들의 관계에만 주목하게 한다. 이 때문에 허구적 이야기의 세계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세계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로알드 달의 소설 속에 나오는 목사의 태도는 ‘이’ 세계의 누군가의 태도와 매우 유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자가 주목하는 소설의 의미는 소설 속 목사의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오컴의 권고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을 때 오는 혼란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다. 가령, 둥근 사각형이나 정7면체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상으로 채워진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골치아픈 문제에 휘말리기보다는 차라리 상상의 세계나 추상적인 대상들의 세계의 존재를 거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세계 이해를 희생시키는 매우 값비싼 해결책이다. 이러한 곤란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효과적인 또다른 방법은 존재론적 질문을 ‘무엇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세계 이해를 반영하면서도 선뜻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세계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 세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방식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파생세계들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대응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태도(Einstellung)에서 기인한다. 예컨대 후설이 말한 것처럼, “산술적 세계는 오직 내가 산술적 태도를 취할 때만 나에게 존재한다.”(Hua III.1, 59쪽) 이런 점에서 여러 세계들은 그에 상응하는 인식 주관의 태도의 수행에 수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¹³⁾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세계들이 모두 동등한 정도의 자립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같은 파생세계라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공상해 내거나, 꿈속에서 겪는 세계처럼 일시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도 있고, 사람들의 도덕적 관념의 체계처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13) 후설, Hua III.1, 59쪽 참조.

고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세계들도 있다. 이렇게 파생세계들이 동등한 자립성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종류의 파생세계들은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는 것이 별반 의미 없는 세계들이 된다. 오컴의 문제는 세계를 오직 공간적으로만 이해할 때 생긴다. 시간성을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존재들의 세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해도 좋은 세계들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라는 종을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유비는 다소 위험한 것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이는 자칫 세계에 관한 논의 전체를 생물학적 개념들로 환원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태를 기술하기 위해 유비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 곧 환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계 이해를 생물학적으로 유비해 보는 것은 오해의 위험만큼이나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도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먼저 하나의 자연종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파생종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애완견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초기 인류의 여러 갈래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양한 아종 혹은 파생종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유전적 돌연변이나 지리적 고립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지극히 우연한 이종 결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파생종들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일시적이어서 대를 이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역시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파생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개체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도 여전히 하나의 자연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무엇이 고유한 정체성을 규정하는가이다. 생물학적 의미의 종(*Species*) 개념은 형태학적, 혹은 생태적, 유전학적 개념으로도 사용된다.¹⁴⁾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14) 엄밀한 의미의 종개념을 확정하는 일은 생물학의 과제이기도 하다. 달리

어떤 일군의 개체들이 고유한 형태학적인 특성과 생태적 특성을 공유하고, 유전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종’으로 불릴 수 있다.

이러한 유비를 이용해 앞선 질문에 대답해 보자. 즉 문화세계는 파생종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자연종이다. 그리고 그런 한에서 문화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함께 구성하는(konstituierende) 중요한 부분 세계이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후설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양한 세계들이 얽히고 증첩되어 있는 세계다. 또 비겔로우가 자연종 개념을 도입한 배경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문화세계를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할 수 없다.¹⁵⁾ 즉 문화세계가 없는 세계는 ‘이’ 세계와는 다른 종류의 세계이다. 이처럼 문화세계가 하나의 자연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는가?

파생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이다. 이 점은 가장 강한 의미의 자연종인 물리적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탄소와 수소 그리고 산소 등의 분자들은 다양한 결합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결합은 끊임없이 시도된다.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결합이 생겨나고, 그 결합을 토대로 다시 새로운 결합들이 생겨남으로써, 우리의 눈앞에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리고 마침내 숨쉬는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가능성들 중에 하나가 실현된 것이 우리 세계의 실제 모습이다. 물론 이런 가능성이 결코 무한히 열려 있을 수는 없다. 동일극의 두 자석이 서로 달라붙을 수 없는 것처럼 가능성은 모종의 한계를 갖는다. 이것이 아마도 비겔로우가 말하고자 했던

말하면 ‘종’은 분류학적인 기술적(deskriptive) 개념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실제로 탐구 대상으로 주어지는 대상은 종 자체가 아니라 개체들이다. 즉, ‘종’은 일종의 개념적 구성물일 수 있다. 따라서 ‘종’을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이유 탓에 생물학사에서 종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사용되기도 하였다. 물론 그런 이유로 ‘종’ 개념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생물학의 상당 부분을 희생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종 개념의 변천사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진화론 이후로 종의 변이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 15) 물론 비겔로우가 설정한 ‘본질적 속성’을 ‘세계’라는 개념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논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 두 개념이 모두 어떤 전체를 이루는 구성적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유비가 가능할 것이다.

본질적 속성이 제약하고 있는 ‘이’ 세계가 빚어낼 수 있는 다양성의 폭일 것이다.

파생세계는 다양한 변형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파생세계 내의 존재자들에 할당된 본질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구성한 대상의 ‘본질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생명체 속에서는 끊임없는 가능성의 실현이 이루어진다. 4가지 염기의 단순한 구조적 배열이 빚어내는 가능성은 기하학적인 수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을 생각해 보면 된다. 더욱이 각 생물종 내의 개체들이 빚어내는 다양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파생세계들 역시 유사한 운명에 처한다. 무수한 돌연변이 세계와 다양한 변종들이 생겨날 수 있다. 자연세계의 생명체들 중 어떤 돌연변이 개체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듯이, 파생세계들 중 어떤 것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그런 파생세계들 중 일부가 일정 시간 후에는 역사적 흔적으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는 것 또한 당연해 보인다. 소설가들이 구성해 낸 파생세계는 아주 일시적인 세계이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유전적 변형이 만들어 낸 일시적인 돌연변이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생세계들을 우리의 세계 목록 안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세계의 건강이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은 과장된 것이다. 오히려 한 생태계 안에서 무수하게 시도되는 다양한 변이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것처럼, 세계를 이해하고 대처하려는 인간에게 있어 파생세계로서의 문화 세계가 갖고 있는 다양성의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견고한 토대에 의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과학의 경우조차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과학자들이 기술하는(혹은 구성하는) 물리적 세계들은 주어진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들, 예를 들어 시공간 안의 사건들로 채워진 우주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델들로 설명해볼 수 있다. 민코브스키(Minkowski)의 선형적 세계 모델이나 복수-세계 모델(Many-Worlds Model) 등이 그렇다. 그런 모델들은

결국 수학적(혹은 논리적) 가능세계들을 개진하는 것이며¹⁶⁾ 그것들 중 어느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인지는 경험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모델의 적합성이 경험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곧바로 두 가지 함축을 분명하게 해 준다. 그 하나는 그런 모델을 구성해 보는 시도의 이유다. 우리가 여러 세계를 구성해 보는 까닭은 사실 ‘바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다. 즉 파생세계의 토대로서, 모든 가능한 변양을 일으키는 토대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파생세계의 변양가능성은 바로 그런 토대세계의 실질적인 한계와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세계족’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파생세계들은 마치 유전자 풀이 빛어낼 수 있는 다양성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무의미한 시도들을 포함하는 모든 가능성을 구현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수학적 의미의 무한은 아니다. 마치 유전자 조합의 수학적 확률처럼 파생세계의 가능성 역시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다. 이때 유전자 풀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파생세계의 토대가 되는 세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대세계는 파생세계의 가능성의 한계가 미리 지정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IV. 생활세계와 파생세계의 의미론

우리의 지향적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지는 파생세계들은 각각 고유한 구조 유전자를 갖는다. 그런 구조 유전자들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우리는 세계를 범주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른바 ‘토대세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 유전자에 대비될 수 있는 본질적 속성들의 성격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것이다. 먼저 토대세계의 경우, 토대세계는 구조적으로 파생세계 없이도 존립할 수 있

16) McCall, S., *A Model of the Universe*, Oxford: Claredon Press, 1994, pp. 3-5 참조.

는 세계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대칭적 관계가 아니다. 다음으로 전이적 관계가 성립한다. 즉 A가 B의 토대 세계고, B가 C의 토대세계라면, A는 C의 토대세계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세계의 토대 의존 관계가 구조적으로 집합적 포함 관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포함관계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자들의 성격이 집합의 동질적인(무차별적인) 원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동일한 범주군에 속하는 세계들이라면, 포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가령, 사자들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에 포함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집합적 포함관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세계들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는 토대 의존 관계로 보아야 한다. 토대 의존 관계를 단순한 집합적 포함 관계와 구분하는 것은 포함관계가 환원적 관계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대 의존 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은 후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¹⁷⁾ 기초지움(*Fundierung*) 관계를 토대로 한 전체와 부분, 그리고 자립적인 대상과 비자립적인 대상에 대한 후설의 분석을 우리의 논의와 관련시켜 말하자면, 비자립적 세계는 그 세계의 기초가 되는 세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파생세계가 토대세계에 의존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토대세계의 계열을 상정할 수 있다면,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후설에 따르면, 환원되지는 않는 파생세계들이 자신의 존재를 의지하고 있는 토대 세계는 바로 ‘이’ 세계, 즉 생활세계(*Lebenswelt*)이다. 후설이 생활세계를 모든 관념적 세계들의 의미 토대로 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생활세계야말로 우리의 직관적인 경험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발생적 뿌리에 파생세계로서의 모든 관념적 세계들이 의지해 있는 것이다. 그 경우 무엇이 ‘이’ 세계의 본질적 속성인지는 기술적 탐구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 즉 파생세계들을 구분시켜 주는 범주적 특성이 무엇인지는 현상학적 분석

17) Hua XIX/1, III 연구, 2장 참조, 특히 267쪽 이하 참조.

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가령, 상상의 세계, 혹은 가능세계는 그것의 토대세계인 지각의 세계가 변형된 것으로서 ‘지금’과 ‘여기’라는 지시적(indexical)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 또 물리적 세계는 원칙적으로 비가역적이지만, 상상의 세계는 가역적일 수 있다. 이러한 범주적 요소들은 우리가 구성하는 세계의 구조적 특징들을 규정한다. 그리고 그런 특징들이 앞서 비겔로우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세계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할 것이다. 각각의 세계가 보여주는 본질적 속성들은 일종의 세계 유전자이다. 즉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해당 세계들은 유형적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계들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양식에 따른 표현형과 그 이면의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의 가능성 또한 열릴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주적 특성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물의 종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유전자의 일반적 구조와 같이 세계의 다양한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특별한 위상의 구조도 존재한다. 예컨대 후설은 “그때그때 완전하게 구체적인 세계의 식의 세계 경험의 흐름에서 ‘세계’의 존재의미는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아울러 개별 실재들의 불변적 유형으로부터 나오는 이 존재의미의 구조적인 구조(*strukturelle Aufbau*) 역시 불변”¹⁸⁾이라고 말한다. 헤라클레이토스적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생활세계의 보편적 구조의 핵심은 지향성(*Intentionalität*)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향성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즉 그것은 오직 구조적인 측면만을 말한다. 이는 마치 네 가지의 염기의 다양한 배열이 무수한 종 다양성을 빚어내지만, 그것들이 모두 유전자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러한 생물 다양성이 염기 배열의 수학적 확률의 한계에 의해 제약되듯이, 세계의 다양성 역시 지향적 구조의 가능성의 한계에 의해 제약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를 범주적으로 구분하고, 그 범주적 특성들과 범주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통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들을 해명하는 일은 비록 어떤 완결된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후설 현상학의

18) 후설, *Erfahrung und Urteil*, Hamburg, 1972, 33쪽.

고유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소위 ‘토대 이동(metabasis)’의 오류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다양성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는 세계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기능 때문이다. 즉 ‘세계’는 결코 그 자체로 지각되는 개별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개별 대상들이 주어지기 위한 선행적 조건으로서 ‘지평’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세계’를 주제화 하는 까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달리 말하자면 다양한 세계들은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모델들에 의지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생물학적인 비유는 바로 이러한 실천적 동기를 담아내는 데 유용해 보인다. 파생세계와 토대세계라는 개념들로 설명하는 세계들 사이의 관계는 논리적인 의미의 타당성 정초관계가 아니다. 그런 한에서 그것은 후설이 경계한 토대 이동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우리가 왜 형식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는 세계라는 개념을 유용하게 사용하는지와 관련된 실천적 타당성 혹은 모델의 적합성을 주제화한다. 가령, 한때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구속력을 가졌던 ‘신들의 세계’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는 세계가 역사성을 갖는다는 단순한 사실의 반영이다. 추상적 관념 혹은 형식논리적 한계 개념으로서의 ‘세계’ 개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할 수 없다.

후설이 ‘생활세계’ 개념을 모든 관념적 구성물의 의미토대로 삼은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에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불완전한 인간 지성의 학문적 활동을 역동적인 목적론적 체계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세계를 구성해(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구성된 세계들은 그것이 ‘이’ 세계를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지에 따라 ‘살아남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른바 문화적 세계들의 존재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19) 후설이 『이념들』시리즈에서 기획한 것이 바로 이 과제였다.

것이다. 일종의 파생세계로서 다양한 세계들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가장 근원적인 토대세계인 생활세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한에서 어떤 종류의 파생세계들은 새로운 학문적 탐구 영역으로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투 고 일: 2010. 08. 02.
심사완료일: 2010. 08. 24.
게재확정일: 2010. 08. 24.

박승익
숙명여자대학교

참고문헌

- 정대현, 「크립키 본질주의와 인공종」, 『철학』 Vol. 29, No.1, 1988.
- 로알드 달(R. Dahl), 『맛』, 정영목 역, 강, 2005.
- Bigelow, J., Ellis, B., & Lierse, C., “The World as One of a Kind: Natural Necessity and Laws of Nature”, in *Brit. J. Phil. Sci.* 43.
- Hussel, E., *Cartesian Meditationenen und Parise Vorträge* (Husserliana I), Haag Martinus Nijhoff, 1973.
- _____,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_____, *Philosophie. Erste Buch* (Husserliana III.1), Martinus Nijhoff, 1976.
- _____,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_____, *Philosophie. Drittes Buch* (Husserliana V), Martinus Nijhoff, 1971.
- _____, *Logische Untersuchungen. Zweiter Band* (Husserliana XIX/1), 1984.
- _____, *Erfahrung und Urteil*, Hamburg, 1972.
- McCall, S., *A Model of the Universe*, Oxford: Claredon Press, 1994.

ABSTRACT

Family of Worlds and World-Genes

Park, Seung-Ug

From a natural point of view, the world is one; but at the same time we used to speak about the plurality of the world without any difficulties: the cultural world, sports world, world of morality, and world of science etc. This is a riddle which is a source of great distress for philosophers.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clarify our world-concept. A possible suggestion to solve the problem is the categorization of the worlds into two worlds: the fundamental world and the derivative world. In an ontological sense, this depends on that, but it means not that some world can be reduced to another world. With the help of biological analogy, I tried to make clear our natural, but complicated world-interpretation.

Keywords: Husserl, Possible World, Intentionality, Fundamental World, Derivative World